

神人調化思想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緒論	IV. 甌山の 綜合的 神觀
II. 神觀의 三類型 - 汎神論 · 多神論 · 一神論 -	V. 神人調化思想의 現代的 意義
III. 世界의 三元性 - 東方 · 西方 · 中方 -	1. 神界秩序의 安定化
	2. 人間救濟의 可能化

I. 緒 論

대순진리회는 신인조화를 종지의 하나로 삼고 있다. 대순사상논총 제 1집에서 정대진(鄭大珍) 대진대학교 이사장은 「대순사상 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신인조화를 이해하는 대체적 관점을 말한다면 먼저 신은 진리의 표준(기준)이며 인간은 그 진리에 합치할 수 있는 가능성적 존재라는 점이다. 이는 신과 인간을 하나의 근본(一本)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이며 신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 존재방식은 다르나 그 이치는 같다는 시각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정대진 이사장은 이어서 「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초월적이며 신비적인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합치되어야만 할 이상적 질서체계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대순진리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태극도(太極道)에서 발행한 도학원론(道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學原論)에서는 신인조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신(신명·귀신)은 천리(天理)의 극(極)으로 삼계에 미만한 것이라 하고 인간의 일거일동에 신명의 작용이 불지 않음이 없으며, 모든 사물과 인간의 역천만사에 신이 없을 수 없다 하였다. 이와같이 우리 인간의 일거일동에 신명의 작용이 불지 않음이 없으므로 신명과 인간의 조화(調和)가 있어야 반드시 조화(造化)를 낳게 할 것이니 이것을 신인조화라고 하였다. 즉 조화(調和)가 선행하는 전제가 되어 조화(造化)라는 결과가 되는데 이 조화(調化)의 이치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에 의하는 것이요, 음양합덕은 신인조화로서 심신(心身)이 합덕하고 심신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면 신인조화에 대해서 증산선생은 어떻게 말씀 하셨나?

전경 행록 3장 44절에는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추기요 문이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을 드나들고 도로를 왕래하는 것이 신이다. 혹은 착함에 있고 혹은 악함에 있는데 착한 것은 이것을 스승으로 할 것이요, 악한 것은 이것을 고칠 것이니라. 내 마음의 추기요 문이요 도로요 천지에 큰 것이니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 神, 或有善 或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吾心之樞機 門戶 道路 大於天地)라 하였고 또 전경 교법 3장 2절에는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이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고 하였다.

증산의 말씀은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신명이 드나드는 문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태극도에서는 신은 천리의 극으로 삼계에 미만하여 있고 인간의 일거일동도 신명의 작용인데 신과 인간의 교류관계는 조화(調和)요 신과 인간의 교류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조화(造化)라고 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요 인간은 진리에 합치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이기 때문에 신인은 일본이요 따라서 신을 이해하는 것은 초월적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인조화라고 하는 것은 신인일체(神人一體) 사상이요, 범신론(汎神論)적 사상이요, 신인이 관계하여야만 만물이 성사된다는 신인협력(神人協力)사상이다.

II. 神觀의 3 類型

- 汎神論 · 多神論 · 一神論

신인일체사상인 범신론은 신인분리(神人分離) 사상인 다신론(多神論)과 일신론(一神論)과 다르다. 범신론은 신과 인간이 같은 뿌리라고 생각 하지만 다신론과 일신론은 신과 인간의 뿌리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신론은 천지 만물은 물론 인간도 유일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신과 인간은 주종(主從)관계에 있고 결코 일체관계가 아니다. 창조주인 유일신은 만물에 초월하여 인간과는 별도로 존재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다신론은 신이 하나 뿐만 아니라 다수 존재하는데 그 신들이 모두 인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범신론은 신과 만물이 일체이므로 만물속에 신이 내재하여 있고 따라서 인간의 속에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신인조화사상은 신인일본의 범신론에 입각하여 신인이 조화하므로써 만물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는 신인협력사상이다.

그러면 왜 이와같이 다른 신관이 형성 되었나?

인류는 의식을 가지게 된 때부터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 첫째, 신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원시인들은 대개 신이 존재 한다고 믿었다. 아직 사고 방식이 충분히 합리적이 못되었던 원시인은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은 대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에게 화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자연현상이나 인간 영웅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하필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것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초월적인 신이 대단히 위압적으로 느껴져서 신 앞에는 덮어놓고 굴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나중에는 신도 인간과 같이 선악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었고 인간이 선하면 선한신의 보호를 받고 인간이 악하면 악한신의 보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신의

종류도 다양하여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고 있다는 범신론사상, 만물중에 모두 신인 깃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힘이 센 존재만이 신이라는 다신론 사상, 만물중에 가장 힘이 센 오직 하나의 존재만이 신이라는 일신사상 등으로 갈라졌다. 물론 범신론·다신론·일신론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모두가 혼재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민족이 사는 풍토의 차이에 따라 생활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 세가지 사상이 분리를 일으켜 어떤 지역에서는 범신론의, 어떤 지역에서는 다신론의, 어떤 지역에서는 일신론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Ⅲ. 世界의 三元性

- 東方 · 西方 · 中方

지금까지 세계를 동양 또는 동방이나 서양 또는 서방으로 2분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동서양으로 나누어 볼 때 그 동서양의 중간지대인 중동이나 서아시아나 동유럽이나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우라르산맥과 코카사스산맥을 중심으로하여 그 동쪽을 아시아, 그 서쪽을 유럽으로 구분하지만 중국 한국 일본 인도의 동아문명과 아랍 터키 이란의 서아 문명이 같지않다. 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의 서구문명과 폴란드 러시아의 동구 문명이 같지않다. 동아문명과 서아문명에 차이가 있고 동구문명과 서구문명에 차이가 있는 반면 서아문명과 동구문명은 오히려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서아지방과 동구지방이 연속되어 하나의 풍토지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동아에서는 농경생활이 발달하고 유교 불교 도교가 발전한데 대해 서구에서는 해양생활이 발달하고 로마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등의 기독교의 신구교가 발달한데 대해 중동지대에서는 농경생활이나 해양활동보다 유목생활이 발달 되었으며, 유교 불교 도교와 다른 이슬람이 발달하고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와 다른 그리스 정교가 발전 하였다. 이렇게 보면 중동지

방을 동양이나 서양의 접촉지대로만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세계사는 서양이 주도해 오기 때문에 동양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하다. 서양인들은 서양인만이 세계사의 주역이요, 서양문화만이 보편적인 세계문화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서양이외의 사회를 비서양사회라고 격하 시켰다. 서양인은 중동지대를 하나의 독립문화권으로 보지않고 그저 서양의 동쪽에 있다하여 「오리엔트」(orient)라는 하나의 특수지대로 인정하고 메소포타미아문화 나일문화같은 중동문화를 서양문화에 앞서 일어나는 일과적 문화로만 해석하고 그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양문화가 그리스문화·기독교문화·산업혁명·정경분리문화·민주주의 문화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발달될 때 중동지대에도 메소포타미아문화·나일문화·이슬람문화·정경일치문화·전제주의문화 등의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서양문화의 발상지 그리스의 동쪽 즉, 중동지방을 오리엔트라고 부른 것은 그 중동지방의 다시 동쪽 넓은 곳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더 큰 오리엔트가 존재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중동문화를 동방문화의 전부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중동이 비록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중동은 서아시아에 속해 있어서 중국 인도와 같은 동아시아와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 중국이나 인도의 동아시아 사람들은 서아시아를 서방으로 보고 서역(西域)이라고 일컫었다. 초기의 동아시아 사람들은 서역의 다시 서쪽에 있는 중동이나 그리스나 로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중에 동서의 교통이 터지고나서 서양인들도 중동외에 동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고 동방인들도 서역외에 중동과 서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옛날에 중동을 의미했던 말이 지금 동방 전체를 의미하게 되면서 오리엔트가 중동을 의미하는지 또는 동양전체를 의미 하는지 개념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가령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편 책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1977년 뉴욕발행 1991년 방흥규 번역)은 서양인들의 중동침략의 양상을 주로 다루면서 그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우리가 세계의 지도를 보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세 가지 유형의 풍토지대

를 볼 수 있다. 첫째는 동아의 계절풍(季節風)적 풍토지대요, 둘째는 서구의 해양성(海洋性)적 풍토지대요, 셋째는 동아와 서구의 중간지대인 대륙성(大陸性)적 풍토지대이다. 이렇게 보면 종래의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지대를 의미하고 종래의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지대를 의미하고 서아나 동구는 중동지대를 포함해서 차라리 중방(中方)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서구인들은 오리엔트인 중동과 문명형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같은 서구이지만 남쪽의 이탈리아, 프랑스는 구교인 카톨릭이 발전되었고 북쪽의 영국 독일에는 신교인 개신교가 발전되었다. 또 동구에는 희랍정교가 발전되었다. 카톨릭, 정교, 개신교는 같은 기독교이지만 반드시 서로 화합하는 것은 아니다. 동양에서 유교, 불교, 도교가 그 교조도 다르고 교리도 다른 전연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적대시 하지 않고 서로가 화합하여 지내는 것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카톨릭, 정교, 개신교가 그 교조도 같고 그 교리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화합되지 못하고 있다. 중세기에 카톨릭이 중동의 이슬람(회교)을 정벌할 때에도 정교는 카톨릭편을 들기보다 오히려 이슬람(회교)편에 가까웠다. 또 종교개혁으로 신구교가 갈라질 때 신구교는 치열한 전쟁을 했으며, 지금도 북아일랜드에서는 신구교간의 갈등이 심하다. 그리스 정교는 로마 카톨릭과 달리 정교일체(政敎一體)의 종교이다.

로마 카톨릭이 교황과 황제를 분리하여 엄격한 정교분리의 원칙하에 있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 정교는 국왕이 정교의 최고 책임자이다. 따라서 그리스 정교는 카톨릭처럼 인류 보편성 성격 보다도 민족 고유적 성격이 강하여 같은 정교라도 그리스 정교, 슬라비아 정교, 러시아 정교 등 민족적 색채가 배여있다. 이 점은 동양에서도 같은 불교이지만 티벳(西藏)이니 몽골의 라마교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불교와 다른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동을 포함한 동구 서아지방은 다만 아시아나 유럽의 일부라기 보다 하나의 독특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그리스 정교와 라마교는 기독교나 불교에 틀림없지만 그 교정일치적 또는 제정일치(祭政一致)적 성격에서 이슬람(회교)과 비슷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종래와 같이 세계를 동양이나 서양으로 이분하는 것보다 동양과 서양과 대

등한 입장으로써 중동 또는 중방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할 것 같다.

동방은 자연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농경생활 때문에 자연과 친화하고 그 자연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는 범신론적 사고가 발전 되었다. 중국의 유교에 있어서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 도교에 있어서의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 인도의 불교에 있어서의 범아일체(梵我一體)사상은 모두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자연의 일부를 이루는 인간도 자연과 같이 신성(神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한편, 서방은 지중해라는 넓은 교통로로 둘러싸여 각지에 대한 자유스런 왕복이 가능 하였기 때문에 상업 생활이 발달되어 일찍부터 자연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상업거래의 상대인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 되었다. 그들은 자연을 신으로 보지도 않았고 신에게도 인간의 성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치 인간성이 천차만별이듯이 신도 천차만별이라는 다신론적 사상이 형성 되었다. 따라서 서방 문명의 원형을 이루는 그리스의 신화는 신들의 다양성이 인간의 다양성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그리스의 신들은 중동의 신처럼 인간에게 명령하는 준엄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동양의 신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며 그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신들이다. 서양이 중동 발생의 기독교를 받아 들였지만 그 서양의 기초속에 그리스의 다신사상이 잠재해 있고 또 기독교도 현저하게 인간화 되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三位一體)사상은 하느님과 성령과 인간인 예수를 동일시 하므로써 첫째는 다신적 입장을 띠고 둘째는 매우 인간적인 종교가 되었다.

유대인이 기독교를 믿지않고 아랍인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철저하게 유일신사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마호멧과 같이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신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동방, 서방, 중방은 그 생활 양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대체로 보면 동방은 농경생활로 인한 자연친화적(自然親和的)인 자연주의요, 서방은 상업생활로 인한 인간중심(人間中心)적인 인간주의요, 중방은 유목생활로 인한 집단중심(集團中心)적인 사회주의다.

동방의 자연주의(自然主義)는 범신론의 모태가 되고 서방의 인간주의(人間

主義)는 다신론의 모태가 되고 중동의 사회주의(社會主義)는 일신론의 모태가 되었다. 동방에 있어서 자연은 가장 큰 혜택이었다. 그러나 중동은 자연의 가혹함과 싸워 가면서 유목 생활을 하여옴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화감보다도 자연에 대한 적대감이 많았다. 그래서 그 자연위에 있어서 자연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유일신적 사고가 발생 하였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대 민족의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믿는 것이 유대교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기독교 이다.

고대 중동지대의 메소포타미아문명과 이집트문명은 서양인이 보는 바와같이 비서양인 동방도 아니고 동양인이 보는 바와같이 비동양인 서방도 아니며 그것 자체로서 독특한 문명 형태다. 이슬람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독특한 종교이며 동로마제국, 비잔틴제국, 사라센제국, 터기제국, 러시아제국의 제정일치의 정치 형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서방의 정치 형태도 아니며 국가가 종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동방의 정치 형태도 아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유일신적 사고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으로 전환된 중동 고유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의 현대판이다.

이와같이 세계는 결코 2원적 구조가 아니라 3원적 구조를 이룬다. 그것은 풍토의 차이에서 연원하였는데 세계의 교류가 넓어짐에 따라 그 풍토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서 오늘날 각 지대의 독특성이 많이 완화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근저에는 무의식적으로 생활의 원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문자의 예를 들어보자! 동양의 문자는 오른쪽부터 세로로 쓰여진다. 한자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다. 이 세로쓰는 문자 형태는 농경생활의 모체가 되는 가족질서와 그 가족질서에 근거한 사회질서, 국가질서를 종적(縱的), 수직적(垂直的)으로 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문자는 왼쪽에서 가로 쓰여진다. 이것은 상업생활에 있어서 평등한 인간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구조도 횡적(橫的), 수평적(水平的)으로 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자나 아랍 문자는 오른쪽에서 가로 쓰여진다. 언뜻 생각하면 동방과 서방의 혼합 같으나, 이것은 혼합이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그렇게 독특하게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로쓰게 된 것은 유목민

의 평등을 나타내고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것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활동이 강하므로 오른쪽은 신의 영역으로 보았을 것이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오른팔은 신성하고 왼손은 부정(不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란 책(1996년 뉴욕발행 1997년 이희재 번역)의 표지에 「태극」과 「십자가」와 「별」의 세 가지 그림이 들어 있는데 태극은 동양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서양을 의미하고 별은 중동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계가 동방, 서방, 중방의 3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 같다. 지금 각국의 국기를 보면 동양의 국기는 태양을 나타내는 원형이 들어있는 것이 많고 서양의 국기는 십자가를 본따서 가로 세로로 줄을 친 것이 많은데 중동의 국기는 달과 별을 그린 것이 많다. 농경생활이 태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원(圓)을 즐기고 서양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의 심볼인 십자가를 좋아한다. 중동인들이 달과 별을 좋아하는 것은 태양이 작열하는 낮 보다도 좀 서늘한 밤을 좋아하며 달이나 별을 국기에 많이 쓰게된 것 같다.

헌팅턴이 동양을 태극으로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태극이 우리나라의 국기이기 때문이다. 태극사상은 주역(周易)에 연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사상이라고 생각 되기도 한다.

주역의 태극사상은 우주의 궁극적존재는 태극이요, 그 태극은 음양으로 갈라지고 이 음양양기의 작용으로 만물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이다. 태극사상은 멀리 주(周)나라부터 있었지만 그 태극이 도형(圖形)으로 된 것은 송(宋)나라 주염계(周濂溪)인데 그것은 오늘과 같은 형태와는 다르다.

오늘과 같은 태극의 모양은 주렴계보다 388년이 앞선 신라시대 서기 682년에 조성된 감은사(感恩寺)의 주춧돌에 새겨진 태극도형이다.

이로보아 태극도형의 시초는 한국인데 신라인들은 태극을 구성하는 곡옥(曲玉)을 매우 사랑하여 태극과 곡옥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을 암시한다.

곡옥은 생물의 원형인 아메바 또는 태아모양을 하고 있어 신라인들이 좋아해서 이것을 왕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식으로 쓰여졌다. 그 곡옥을 두

개를 합치면 태극이 된다. 신라인들은 아메바나 태아에서 우주 생명의 근원을 보고 그것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태극으로 생각하고 그 태극이 음양으로 갈라진다고 본 것 같다. 신라의 곡옥에 대해서는 또다른 해석도 있다. 신라인들은 만월 보다는 초생달을 좋아했는데 만월은 기울어지는 시초지만, 초생달은 차차 더 해가기 때문에 생명의 성장을 상징한다. 신라의 궁성이 있던 곳도 반월성(半月城)인데 반월은 곧 초생달이다. 지금 태극은 음양의 양극으로 되었지만 우리 한국인이 쓰는 태극부채나 태극복이나 태극대문 같은데는 3태극으로 그려진 것이 많다. 한국인들이 우주의 근원은 하나이요, 그 하나에서 둘이 나와 태극과 음양을 합친 셋이란 숫자가 우주의 근본수라고 본 것 같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난 환인(桓因) 환웅(桓雄) 단군(檀君)의 삼신(三神) 사상과 우리 민족의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는 천부경(天符經)에도 하나는 없음에서 시작되나 처음은 하나요 삼극으로 갈라져서 근본이 다하지 않는다.(一始無始 析三極 無盡本)라고 하고 우리의 민족 종교의 본산인 대종교(大宗教)의 경전인 삼일신고(三一神誥)나 또 우리 민족이 특히 3·1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이 셋을 신성시하고 있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3은 한국만의 신성수가 아니라 동양 전체의 신성수다. 중동의 일신교 사상이 하나를 신성시하고 서양의 다신교 사상이 둘을 신성시하고 동양의 범신교 사상이 셋을 신성시하고 있다. 대순사상에 있어서도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 중찰인사(中察人事)의 천지인 3재(才)를 중요시하는 것은 역시 3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중동의 일신교의 하나 사상은 독단론(獨斷論)을 가져오고 서양의 다신교의 둘 사상은 변증법(辨證法)을 가져오고 동양의 범신교의 셋 사상은 합일론(合一論)을 가져 오는 데, 합일론은 음양합덕이요 신인조화다. 음(陰)과 양(陽)이 합일하여 중(中)을 이루는 것이 합일론이요 신(神)과 인(人)이 조화(調化)되어 도통(道通)하고 도통하여 진경(眞境)을 이룬다. 도통이라함은 신인이 조화된 경지요 진경이라함은 도통한 사람의 존재양식인데 선경(仙境)과 같다. 신과인이 조화되어 신선이 되는 것이 도통하는 것이요 진경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을 위주로 하던 고대 서방의 그리스문화가 퇴조되고 모든 것을 신을

위주로 생각했던 서방 중세에서는 인간은 신의 노예에 불과 하였다. 신의 노예 상태에서 인간을 구출해낸 것이 서방의 근대문명인데 그 근대문명의 절정에서 신은 병을 얻거나 죽었거나 아예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까지 말살되어 버렸는데 그와같은 무신론사상을 가속화시킨 것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드디어 정치적 승리를 거두어 소련제국을 건설하기까지 이르렀는데 20세기는 전반적으로 신이 수난을 받은 시기였다.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대립 되었을 때 세계의 궁극적 질서가 자유적 민주주의이나 평등적 사회주의이나에 관심이 쏠렸다. 제2차대전 후 동방의 중국이 공산화되고 동구의 여러나라가 공산화됨에 따라 일시 세계는 공산주의가 제패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20세기말에 이르러 공산주의는 붕괴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을 두고 미국의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1989)」에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영구히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세계질서는 안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질서는 더 어지러워지고 있다. 그동안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통제에 묶여있던 종교신앙, 민족감정이 통제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마음대로 분출하기 시작하여 헌팅턴이 「문명이 충돌」이 일어날 것을 경고 하기에 이르렀다. 헌팅턴은 후쿠야마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지배라는 낙관론을 뒤집고 이와같은 낙관론은 지금까지의 서방위주의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 세계에는 중국을 위시한 유교권인 동방이 있고 또 중동에는 이슬람이 다시 대두하여 기독교적인 서방 세계가 이들 이질문명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헌팅턴이 세계를 아직도 서구와 비서구로 가르는 것은 서구사상의 보편성(普遍性)을 믿는 서구중심의 사고방식이다. 이제 세계를 동방·서방·중방의 삼원구조에서 볼 때가 왔다. 서방인들은 아직도 비서방지역인 동방과 중동을 서방보다 문명이 낙후한 것으로 보는 데 동방·서방·중방의 각각 그 풍토에 적합한 문명을 가졌을 뿐이요, 그 문명 자체에 우월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문명은 풍토성을 지니면서 그것 나름대로의 보편성이 있다.

세계를 동방·서방·중방의 3원 구조로 보면 지금까지의 서방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세계 평화는 세계를 서방화로 일원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세계의 3원구조를 존중하여 동방·서방·중방이 서로 상대방의 문명을 존중하여 충돌하지 않고 사이 좋게 공존하는 것만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우리는 「문명의 충돌」을 막고 「문명의 조화」를 이루는 방도를 증산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IV. 甌山의 綜合的 神觀

세계에 여러 가지 신관이 있는데 증산은 어떠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나?

증산의 신관은 첫째로 동양적 전통에 따라서 범신적이요 둘째는 서양적 사고와 같이 다신적이요 셋째는 중동의 사고와 같이 유일신적이어서 말하자면 종합적신관이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느니라」(전경 교법 3장 2절)는 말씀은 분명히 범신론적이다.

그런가하면 증산은 실로 많은 신들을 거론하고 있다. 모든 것에 신이 들어 있으므로 따로 신을 거론 할 필요가 없는데 특별한 신을 인정한 것은 서양적 다신적 사고와 같다. 동양의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서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 조상신(祖上神) 수호신(守護神) 기타 많은 신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다신적이다. 그러나 서양의 다신사상은 본래부터 신인 것과 신이 아닌 것이 구별되어 있어 그 신이 여럿이 있지만 동양의 유교나 도교나 불교는 본래가 범신적이어서 모든 것이 신이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거명한 것이므로 서양의 다신교와는 다소 다르다. 서양의 다신교에서는 신이 아닌 것은 영원히 신이 아니지만 동양에서는 본래 신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그 중에서 중요한 신이 거론되어 다신적인 것 같지만 거론되지 않은 것도 신임에는 틀림없고 다만 거론되지 않을 뿐이다.

증산이 언급한 신의 종류는 매우 많다. 지방신(地方神)으로서의 조선신명

(朝鮮神明), 서양신명(西洋神明), 기능신(機能神)으로서의 문명신(文明神), 도통신(道通神), 음양신(陰陽神), 보은신(報恩神), 해원신(解怨神), 가문신(家門神)으로서의 조상신(祖上神), 성격신(性格神)으로서의 원신(怨神), 역신(逆神), 명부신(冥府神)으로서의 지하신(地下神), 황천신(黃泉神)과 산신(山神) 용신(龍神), 신장신(神將神), 24절신(二十四節神), 28숙신(二十八宿神), 칠성신(七星神) 기타 무수히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신을 거느리는 상제라는 최고신을 인정하는 데서 유일신적 성격도 있다. 그러나 중동의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유일신과 증산의 유일신은 다르다. 중동의 유일신은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위압적으로 군림하는 존재지만 증산의 최고신은 인간을 초월하는 동시에 인간에 내재해 있고 인간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대신에 인간을 높이고 구원하는 봉사的神이다. 「천지의 중앙이 마음이다 고로 동서남북신이 마음에 의지한다」(전경 교운 1장 6절 현무경) 「선천에는 모사재인(謀事在人)하고 성사재천(成事在天)이라고 하였으나 후천에는 모사재천(謀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 하나라」(전경 교법 3장 2절)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이니라」(전경 교법 2장 56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 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 하다가 이 동토에 거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강세 하였노라」(전경 교운 1장 9절) 등의 말씀을 종합하면 신은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으므로 마음이 곧 신이며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이므로 인간이 제일 귀한 것이며 그 인간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이 초월적으로 스스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의 마음이 움직여서 신이 발동하고 신이 하강한 것도 신 자체의 의사이기 보다는 인간의 의사이며 신이 이루고저 하는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뜻이 된다.

중동의 유일신론의 신존인비(神尊人卑) 사상에 비해 동양의 범신론은 신

인동격(神人同格)으로 신존인존(神尊人尊) 사상인데 증산은 동양의 범신론 사상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 인존신비(人尊神卑) 사상으로까지 갔다. 증산이 생각하는 최고신으로서의 상제도 인간에 군림하기 보다는 봉사하는 것이요 권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충실한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전제주의 시대의 군주상(君主像)과 민주주의 시대의 통치자상(統治者像)과 같다. 전제 시대의 초월적 존재이어서 스스로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주는 국민에게 군림하였지만 민주시대의 통치자는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국민이 갖고 그 주권자의 국민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에 통치자는 국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복(公僕)으로 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증산의 신관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적 신관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고 통치자는 봉사자인 것처럼 증산의 신관에서도 내재적으로 신을 모시고 있는 인간이 그내재적 신을 초월화시킨 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인존사상의 근거가 있다.

증산은 최고신의 상제로서 자유자재로 모든 신을 부렸다. 그러나 그것은 상제가 그 권력을 발동 시키기 보다는 창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신들이 권력 남용이 안되도록 적당한 관리를 하였다. 상제로서의 증산이 구천에서 하강한 것도 상제 자신의 결정보다 모든 신들의 간청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증산이 말하자는 신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신은 봉사자요 관리자이며 결코 일방적 지배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상제가 구천에서 자의로 하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의 간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청에 의한 다는 것은 상제가 모든 신들에 의해 선택 되었다는 뜻이다.

V. 神人調化 思想의 現代的 意義

1. 신계질서(神界秩序)의 안정화(安定化)

지금까지는 종교가 다르고 신앙 대상이 틀리면 자기 종교에서 신앙하는 신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서 신앙하는 신은 악마(惡魔)나 사탄

(Satan)으로 인정하여 배척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신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에서는 그 십계명(十戒銘)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믿을 것을 강요하고 다른 신은 우상이라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십계명에서는 여호와신이 스스로를 질투의 신이라고까지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자손에게는 복을 주지만 자기를 믿지않는 사람들의 자손에게는 화를 준다고 하여 여호와신이 보복적인 성격인 것을 분명히 했다. 여호와신의 이와같은 배타적신관은 예수에 의하여 많이 완화 되었다. 예수가 특히 역설한 것은 유대민족의 보복사상을 시정하는 것이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대의 보복 사상을 반대하고 「남이 오른 뺨을 때리면 바른 뺨도 돌려라」, 「남이 아랫바지를 찢고저 하면 옷저고리도 주어라」, 「남이 십리를 가자고 강요하면 같이 이십리를 가라」(마태복음 5장 38-42절) 등 철저한 무저항주의를 표방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반유대교적인 복음을 외쳤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은 종래의 보복적 유대교를 박애적 기독교로 전환 시키는 중대한 종교개혁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설사 종교가 달라서 신앙대상의 신이 같지 않더라도 그 신을 미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는 이와같은 박애사상이 결코 유대의 전통적 사상을 파기 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완성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기독교에 있어서도 다른 종교의 신을 악마라고 하여 미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를 혁신한데서 출발 하였다고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유대적 사상을 아주 완전히 배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독교의 배타적 사상은 다른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한 뒤에 원주민들의 토속종교를 완전히 파괴하고 전부 카톨릭으로 개종시킨 일이라든지 또는 앵글로색슨 민족이 북미를 정복하고 나서 북미를 기독교 일변도로 만든 것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기독교와 같은 일신교인 이슬람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슬람교는 정교일치의 종교이므로 타종교에 대한 배타심은 기독교보다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로 편입된 곳에서는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의 존

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신교 뿐만 아니라 다신교도 다른 종교의 신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그러나 범신교는 다른 종교의 신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다. 우리는 불교의 경우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본다. 불교의 모체를 이루었던 브라만교는 범신론인 동시에 또한 다신론이다. 불교는 범신이고 다신이고간에 신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깨달은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불심을 믿는 종교이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무신론적 종교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바라문교의 신을 인정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주의 최고의 가치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 부처님의 불법을 호위하는 신장(神將)으로서 바라문교의 신들을 인정하고 이러한 신들에게 부처님의 불법을 호위하는 구실을 주어 부처님과 함께 절에 모시고 있다. 이와같은 불교의 타종교와의 공존성은 특히 한국의 경우 두드러진다.

한국의 절에 가면 불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칠성각(七星閣)이나 산신각(山神閣)이나 독성각(獨聖閣)이 있는 데 이는 다른 불교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이는 불교의 관용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국 고유신앙의 종교적 관용성도 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태 칠성각이나 산신각이 있던 자리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절을 지었으며 새로 절을 지을때도 칠성각과 산신각을 새로 세워서 고유신앙이 불교와 공존하고 불교가 고유신앙과 공존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증산은 타 종교의 신이나 타국의 신이나 민속상의 신을 배척하지 않고 모두 신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신을 자기 종교의 법을 수호하는 신장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증산사상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은 서로 사이좋게 공존한다. 지금까지 인류의 분류는 종교상의 신앙대상이 틀린데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래 종교라는 것은 사랑을 내세워 인류가 서로 화합 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자기 종교의 신앙대상이 아닌 다른 종교의 신앙대상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바람에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할 종교가 오히려 인류의 분쟁을 부채질 한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다. 증산계서는 이와같은 종교계의 분쟁은 신들 사이에도 분쟁을 일으키게하고 신들 사이의 분쟁이

다시 인간들의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전경 교법 1장 54절에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에서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명계의 해원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증산이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을 다 인정 하므로서 신명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모든 신이 어떻게 공존하느냐가 문제다. 모든 신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공존한다면 신들의 세계가 평화스러울 수 없다. 공존하는 신들 사이에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있고 그 위계질서를 관리하는 최고신이 존재하므로써 신명계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 모든 신을 관리하는 최고신은 증산은 상제(上帝)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고신인 상제가 다른 신 위에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도수를 주관하면서 언제든지 그 자리는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줄 수 있다는 인존주의적 민주주의적 최고 신이다. 전경 공사 1장 2절에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전경 예시 16절에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게 되니라」 전경 공사 1장 3절에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에 나타난 상제의 절대적 권능성을 보면 증산이 생각한 최고신은 유일신 종교의 최고신과 같은 것 같다. 그러나 전경 교법 3장 35절에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의 말씀은 상제의 위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제는 인간에게 군림하기 위하여 인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인간중에서 뻗힌 존재다. 여기에 증산의 새로운 신관이 있다. 종래는 신이 인간보다 높아서 인간에게 군림하였지만 증산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이 가지는 권능은 어디 까지나 인간이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종래의 권위주의적

생각에서 일국의 통치자를 신성시 하던 것을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자에 의하여 국민의 봉사자로 뽑힌 것이 일국의 통치자라는 민주주의적 통치자관과 같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주권자인 국민은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위대한 경륜을 가지면 언제든지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 처럼 인간으로서 신성을 완성하여 창생을 제도하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은 상제가 되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된다. 이와같이 누구나 다 상제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인존사상이다.

상제는 모든 신명이 다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다. 전경 교운1장 65절에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교(佛敎)의 종장(宗長)으로, 주회암(朱晦庵)을 유교(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利瑪竇, Matteo Ricci)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의 말씀과 전경 예시 12절에 「상제께서는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샐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는 말씀과 전경 교운1장 9절에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겹맥을 구천에 하소연 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라는 말씀은 신명계에 위계질서가 있고 그 위계질서를 관리하는 최고신이 상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신명이 상제의 관리하에 평화적으로 공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신계는 안정되어 신들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인간구제(人間救濟)의 가능화(可能化)

오랫동안 신의 노예로 구속 받았던 인간은 이제 기계로부터 구속받게 되었다. 중세기의 종교전성시대에는 신의 그림자에 가리어 인간의 제모습도 찾지 못하다가 문예부흥으로 이성이 존중되어 인간이 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스럽게 과학을 발달 시켰다. 과학의 발달은 많은 문명과 기계를 생산

하게 되고 그 많은 기계는 인간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 신에게 해방된 인간은 물질인 기계의 속박을 받게 되었다.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존엄성을 상실한 인간은 스스로를 비하시켜 신성을 포기하고 차차 동물화 되어가고 있다. 본시 동물의 하나였던 인간이 동물과 달리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여 동물과 차별 지으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자라났는데 물질만능으로 되면서 인간의 동물성만 강조되고 인간의 신성성은 포기하는 경향이 되고 말았다. 특히 유물론적 사고의 득세로 인간의 타락은 가속화 되어가고 있어 인류의 장래에 대해 비관론까지 대두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에서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다.

인간을 구제 하는데 그 영혼을 구제 하는데 주력한 종교는 예로부터 있었지만 물질만능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영적구제만으로는 부족하고 물질적 구제가 급하다는 사회사상이 대두 되었다. 여러 가지 사회사상으로 인간의 구제에 노력 하였고 그 중 가장 대규모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된 인간구제운동이 공산주의 사회사상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사상이 실패로 돌아가고만 지금에 있어서 인간은 다시 영혼 구제운동인 종교로 회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과거의 종교 운동이 결코 성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종교적인 인간구제운동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악을 가져 왔다고 보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런 까닭에 공산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배척하고 있다. 이제 공산주의가 퇴조 되면서 종교가 다시 살아 났는데 그 종교가 과거의 것과 같다고 하면 종교로인한 인간구제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공산주의라는 반종교운동을 겪고 다시 살아난 종교라면 어딘가 과거의 것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종교는 신과 인간을 엄격히 분리하여 신이 완전히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종교가 유지 되었다. 그리고 그 신이라는 것도 초월적으로 인간 밖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신비적인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비과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인조화 사상에 있어서는 그 신을 초월적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 보다는 가장 확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가 있다. 신이 초월적으로

존재한다고하여 허공을 향해 기도하기 보다는 신을 내재적으로 찾아 자기 마음속으로 향하여 치성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다. 신과 인간이 다르고 신을 인간 밖에서 찾기 때문에 신존인비(神尊人卑)사상까지 생겼으나 신인조화사상으로 신과 인간이 일본이면 신이 높고 인간이 낮다는 사상은 생길 수 없다. 증산은 오히려 천존이나 지존보다 인존을 더 강조 하였는데. 그러므로 새로운 종교는 이 인존사상에 기인하는 새로운 신관에 인각하여야 한다.

타락된 인간을 구제하는 첫째길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신인조화사상처럼 확실한게 없다. 인간이 구제된다는 것은 영혼만 구제되고 육체가 무시된다든지 육체만 구제되고 영혼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구제된다는 것이다. 즉 마음이 편안하고(安心) 육신이 평안(安身)하여야만 비로소 인간으로 구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종교는 영혼의 구제에만 주력 하였고 공산주의같은 사회사상에서는 육체의 구제에만 주력한 셈인데 새로운 종교는 영혼과 더불어 육체의 구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만 한다.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이 다 같이 편안한 상태가 선경(仙境) 또는 진경(眞境)이다. 증산은 유교보다 선(仙) 사상을 중요시 하였는데 이 선사상은 단군이래의 한국 전통사상이다. 그것이 신라의 풍류도(風流道)가 되고 고려에 팔관회(八關會)가 되고 조선조의 선비도가 되어서 한국사상의 정통으로 이어 내려왔다. 선도사상이 중국에 전파되어 도교(道敎)를 이루어 한국에 유입 되었을 때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를 선도(仙道)라고 하는데 대해 우리의 고유의 선도를 국선도(國仙道)라고 한 것을 보아도 선도 사상의 원류가 한국임을 알 수 있고 단, 중국의 진나라 갈홍(晉 葛洪)이 지은 포박자(抱朴子)라는 도교책에도 도교의 시조 황제(黃帝)가 동으로 청구(靑丘)에 가서 자부선인(紫府仙人)으로부터 도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청구는 바로 한국의 옛 이름이다. 증산의 원시반본(原始返本)사상을 중요시 하고 환부역조(換父易祖)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으므로 그의 사상의 기초가 우리의 고유사상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고유사상은 바로 선도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평양은 본시 선인 왕검의 집이다. (平壤者 本 仙人王儉之宅也)라 했으니 왕검은 단군이므

로 단군이 신선이라는 말이요,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단군이 나중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고 했는데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신선이 되었다는 말이다. 종교에서 믿는 신이나 영혼은 육체가 없어서 영생 하지만 육체가 있는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게 마련인데 신선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면서 불로장생 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은 믿어왔다. 이것은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가 열대지방이어서 매우 더웁고, 기독교의 발생지인 중동이 사막지대여서 매우 살기 어려운 곳이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현세를 고택으로 규정하고 낙원은 내세에 구하는 내세 지향적(來世 志向的) 세계관인데 반하여 한국은 산수가 수려하여 그것 자체로서 낙원을 이루는 선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고 현세 지향적(現世 志向的) 세계관으로 불로장생(不老長生)을 바라고 그와같이 육체를 가지고도 죽지않는 존재를 신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신선사상은 사후에 극락이나 천당보다 생전의 선경을 바라고 있다. 한국인이 즐기는 신선도(神仙圖)나 십장생도(十長生圖)는 비현실적인 몽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십장생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신선도에 나타나는 신선들의 운치 있는 생활은 한국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신선사상 이야말로 종교와 사회사상을 일치시킨 것인데 그 신선이 되는 길이 바로 신인조화 사상이다.

신인조화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 위에 인간의 생명과 영혼과 육신을 영원하게 만드는 사상으로 진실로 고택을 헤메고 타락한 인간을 구제 하는데 가장 확실한 사상이다. 이 사상으로인해 인간구제는 가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